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7, No.4, 547-559, 2001.

주요개념 : 성폭력, 고등학생, 잘못된 통념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분석

염영희* · 이규은** · 윤양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서 강렬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생긴다. 게다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시청각 매체(영화, 비디오, 만화, 잡지, PC음란물)를 자주 접하게 되면 성 충동을 억누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이때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 충동, 성적몽상, 성적행동을 옳게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폭력 같은 성적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성교육전문가과정, 2000).

1998년 우리 나라 총 범죄 건수 가운데 청소년 범죄가 6.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성과 관련된 각종 비행이 상당 부분 포함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9). 이는 청소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의 가치관 혼란, 성 문란의 보편성 및 성의 범죄화 경향과 관련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강간 범죄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전반적인 범죄자의 연소화, 흉포화 경향을 띠고 있다(김은주, 1997).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의 인격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하여 실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즉,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성교육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성교육 자료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 성교육 내용이 생물학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학교 성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교사가 없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성교육세미나, 2000).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내용 중 성폭력 관련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자로 한 성폭력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양순옥 외(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9년 3월 전에 국내에서 개발된 성교육자료 274종을 분석한 결과 86편이 비디오로 제작되었고 이 중 성폭력을 주로 한 비디오는 16편이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는 총 3편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는 없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성교육 요구도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이진경, 김은주, 염영희, 2001).

이처럼 고등학생의 성폭력 요구도가 높은 반면 개발된 자료는 학생들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한다. 심영희(1998)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특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 영동전문대학 간호과

된 통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응답자 2,258명 중 84%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다니다가 강간 당한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59%가 '강간 당한 여자는 순결이나 정절을 잃은 것이다', 78.1%가 강간범들이 강간을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성충동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통념이란 사회 전반에 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가부장제도와 문화라는 토대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쉽게 퇴치하기가 어렵다. 이를 퇴치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수준에 적합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준에 적합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았던 성폭력 관련 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받았던 성폭력 관련 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조사해 봄으로서 차후에 개발하게 될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성폭력 관련 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3) 대상자의 성폭력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4)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정도를 확인한다.
5) 성폭력 교육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확인한다.
6)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확인한다.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 성폭력 :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예,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8문항으로 구성된 성폭력에 대한 지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문헌고찰

1. 성폭력의 정의 및 실태

성폭력(sexual violence)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강간, 강간미수, 근친상간, 성희롱,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 범죄, 음란 전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한 언행,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하는 행위, 기타 변태적인 성욕표현 등이 속한다(윤가현, 1998). 성폭력 중 가장 심각한 형태는 강간인 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한국 성폭력연구소, 2000).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경우는 '낯선 자 강간'(stranger rape), 안면이 있는 경우는 '친근자 강간'(nonstranger rape)이라고 표현한다(윤가현, 1998; Youn & Ball, 1986). 성희롱은 사회 통념 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 원하지 않는 육체 접촉을 하는 육체적 성희롱, 및 혐오감이 드는 시각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한다.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3위라고 하지만 신고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2.2%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또한 피해자의 97%가 여성이며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에 분포되어 있다. 1999년도 상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만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피해가 43.4%였으며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근친이나 친, 인척(의붓아버지, 친오빠, 사촌오빠, 형부, 삼촌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성폭력 가해자는 약 78%가 피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

담소, 2000).

또한 서울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6.8%가 초등학교 이후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45.7%는 언어적 성희롱, 30.3%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성추행, 그리고 5.0% 는 심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재엽과 이근영, 1998). 따라서 이 연구에 따르면 여고생 2명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하였고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는 언어적 성희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간미수의 피해를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1.4% 였고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을 포괄한 심각한 성폭력 피해율은 3.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의 여성 중 세 명은 강간이나 강간미수 혹은 심한 추행을 적어도 한번은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지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데 특히 심각하게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한 건수는 전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52.8%이며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한 건수는 43.3%, 성적 후유증은 6.2%, 사회적 후유증은 12.4%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강간을 순결 상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강간은 '강제적인 성 관계' 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폭력(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http://www.sisters.or.kr)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왜곡된 성문화 및 성폭력을 가속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음란물을 들 수 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연구를 보면 성 표현물을 많이 접할수록 매체의 행동을 관찰 학습하거나 매체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매개로 성 관련 비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안동현(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70~90%에서 음란물을 접했을 정도로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에게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다고 했으며 음란물은 대개 중 1, 2학년에 처음 접하며 비디오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보고 난 후 51.3%의 청소년이 따라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꼈으며 실제로 약 20%의 청소년은 모방 행동을 하였다. 모방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자위행위였으나 사창가를 출입했거나 성 관계 혹은 강간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김준호와 김혜원, 1997). 음란물이 심리에 미치는 효과로는 성적행동을 활성화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표현에 대해 점차적으로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음란 매체를 통해서 성적 대리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성적 감정의 분출을 느끼며 성범죄와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김영혜, 이화자 및 정향미, 2000)을 들 수 있다.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Estrich(1987)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전에는 밤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덤벼들어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만 진짜 강간으로 받아들였으나 요사이는 만원 버스, 지하철, 직장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인지한다고 한다(심영희, 1998에서 인용).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심영희 외(199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혼전 성관계를 가진 668명의 여성 중 254명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들 중 80명의 여성이 강제적 혼전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심영희(1998)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3가지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유형은 강간에 대한 통념으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다가 강간당한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등. 둘째 유형은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의 성충동을 정당화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강간범들이 강간을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성충동 때문이다'. 등. 셋째 유형은 강간자체에 대한 것으로 강간은 성관계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이나 정절을 잃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폭력에 대한 대표적 통념의 예는 다음과 같다(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 강간은 성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 성폭력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성폭력은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부부간에 강간은 있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여성은 강간을 즐긴다', '정숙한 여자는 강간당하지 않는다', '강간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등(심영희, 1998)의 잘못된 통념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렇듯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팽배해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그들이 받은 성폭력 교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5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95명, 여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5문항,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3문항,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관한 8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절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연구 도구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간호학자, 성교육 전문가 및 양호교사에 의해 검증되었고 신뢰도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절차는 먼저 해당학교 양호교사를 사전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양해를 얻고 설문지를 우송하여 해당학교 양호교사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배포한 후 자가 응답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 중 68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기재가 미비하여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17부를 제외한 660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내용, 성폭력의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때 '절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나타내는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3) 일반적 특성, 성폭력 교육 및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ANOVA 및 t-test를 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90명(43.9%), 2학년 232(35.2%), 3학년 138(20.9%) 였으며 남학생 29.5% 여학생 70.3%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 38.8%, 없음 33.8%, 불교 17.4%, 천주교 9.7%의 순이었으며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 42.6%, 보통이다 31.8%, 매우 건강하다 19.4%, 건강하지 못하다 6.1%로 나타났다. 집안 분위기는 보통이다 66.7%, 개방적이다 19.2%, 보수적이다 13.9%였으며 양친이 생존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7.1% 였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88.3%, 어머니는 77.4%였다.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생활 수준이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성적은 중 67.7%, 하 21.4%, 상 10.5%를 점유하고 있었다〈표 1〉.

2.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내용

대상자들의 성폭력 교육 경험은 있다 63.3%, 없다 36.5%로 2/3정도의 학생이 성폭력 교육을 받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6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학년	1학년	290	43.9
	2학년	232	35.2
	3학년	138	20.9
성별	남	195	29.5
	여	464	70.3
	무응답	1	0.2
종교	기독교	256	38.8
	천주교	64	9.7
	불교	115	17.4
	없음	223	33.8
	무응답	2	0.3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128	19.4
	건강하다	281	42.6
	보통이다	210	31.8
	건강하지 못하다	40	6.1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	0.2
집안분위기	보수적이다	92	13.9
	보통이다	440	66.7
	개방적이다	127	19.2
	무응답	1	0.2
부모생존여부	양친생존	641	97.1
	편부	1	0.2
	편모	16	2.4
	무응답	2	0.3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646	97.9
	이혼	13	2.0
	무응답	1	0.2
아버지 최종학력	대학원졸	45	6.8
	대졸	173	26.2
	고졸	365	55.3
	중졸	49	7.4
	중졸미만	20	3.0
	기타	6	0.9
	무응답	2	0.3
어머니 최종학력	대학원졸	10	1.5
	대졸	84	12.7
	고졸	417	63.2
	중졸	114	17.3
	중졸미만	26	3.9
	기타	3	0.5
	무응답	6	0.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66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생활수준	상	36	5.5
	중	581	88.0
	하	42	6.4
	무응답	1	0.2
학교성적	상	69	10.5
	중	447	67.7
	하	141	21.4
	무응답	3	0.5

〈표 2〉 성폭력교육과 관련된 내용 (N=66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교육경험	있다	418	63.3
	없다	241	36.5
	무응답	1	0.2
성폭력지식의출처	부모	18	2.7
	교사	103	15.6
	친구	112	17.0
	선후배	3	0.5
	형제자매	1	0.2
	책	15	2.3
	잡지	11	1.7
	매스컴	326	49.4
	컴퓨터	21	3.2
	기타	21	3.2
	무응답	29	4.4
성폭력교육의 적당한 시기	유치원	118	17.9
	초등1-3학년	111	16.8
	초등4-6학년	287	43.5
	중학교	116	17.6
	고등학교	11	1.7
	기타	11	1.7
	무응답	6	0.9
적합한 성폭력교육 담당자	담임선생님	66	10.0
	양호선생님	291	44.1
	가정선생님	137	20.8
	체육선생님	18	2.7
	기타	144	21.8
	무응답	4	0.6
적합한 성폭력교육 매체	비디오	210	31.8
	CD-ROM	20	3.0
	인터넷	50	7.6
	잡지	10	1.5
	강의	305	46.2
	만화	38	5.8
	기타	17	2.6
	무응답	10	1.5

성폭력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에는 매스컴(49.4%), 친구(17.0%), 교사(15.6%)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 과반수의 학생이 성폭력 교육의 적당한 시기를 초등학교 4~6학년이라고 응답했다. 성폭력 교육에 적합한 사람으로 약 과반수가 양호선생님(44.1%)을 들고 있으며 가정선생님(20.8%)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폭력 교육 시 적합한 방법으로는 강의(46.2%), 비디오(31.8%), 인터넷(7.6%), 만화(5.8%), CD-ROM (3.0%)를 들고 있었다〈표 2〉.

3. 성폭력 경험 여부

대상자들의 34.1%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22.3%가 강제키스나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을 경험하였다. 또한 0.8%의 대상자가 강간경험을 가지고 있었다〈표 3〉.

〈표 3〉 성폭력 경험 여부 (N=660)

경험 여부	구분	실수	백분율
성희롱경험	유	225	34.1
	무	433	65.6
	무응답	2	0.3
성추행경험 (강제키스 혹은 신체접촉)	유	147	22.3
	무	513	77.7
강간경험	유	5	0.8
	무	654	99.1
	무응답	1	0.2

4.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지식 정도

대상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관해 지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2.71±0.45점으로 나타나 5점 만점 중 중간 정도를 보여주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문항은 '성폭력은 주로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로 3.62±1.11점이었으며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부나 저항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3.56±1.07점,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다' 3.15±1.26점,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3.11±1.20점, '성폭력 피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2.85±1.11점,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2.34±0.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지식 정도 (N=660)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성폭력 피해는 단 한번에 그친다.	1.68	0.75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진다.	1.35	0.67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2.34	0.93
성폭력 피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2.85	1.11
성폭력을 하는 사람(가해자)은 정상인이 아니다.	3.15	1.26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부나 저항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3.56	1.07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3.11	1.20
성폭력은 주로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	3.62	1.11
합계평균	2.71	0.45

5. 성폭력 교육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

성폭력 교육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잡지를 통해 성폭력 지식을 획득한 대상자들이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8$, $P<.01$). 또한 성폭력 교육의 적당한 시기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교 1~3학년, 유치원의 순으로 나타나($F=8.90$, $P<.0001$)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어릴 때 받을수록 우리 사회가 가진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물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교육의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체육선생님이 담당한 경우, 담임선생님, 양호선생님, 가정선생님이 담당했을 때 보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정도가 높게

〈표 5〉 성폭력교육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차이검증

특성	구분	Mean ± SD	F or T 값	Duncan test
성폭력 교육경험	있다	2.69±0.44	-1.62	
	없다	2.75±0.47		
성폭력지식의출처	부모	2.59±0.65		
	교사	2.75±0.42		
	친구	2.78±0.48		
	선후배	2.08±0.14		
	잡지	2.58±0.46	2.58**	10,9,3,2,8,
	매스컴	2.57±0.49		1,6,7〈4
	컴퓨터	2.67±0.41		
	기타	2.79±0.40		
	무응답	2.91±0.64		
성폭력교육의 적당한 시기	유치원	2.54±0.46		
	초등1-3학년	2.61±0.44		
	초등4-6학년	2.72±0.44	8.90****	5,4〉
	중학교	2.88±0.38		6,2,3,1
	고등학교	2.93±0.46		
	기타	2.73±0.48		
적합한 성폭력교육 담당자	담임선생님	2.75±0.45		
	양호선생님	2.72±0.47	2.21*	
	가정선생님	2.68±0.45		4〉1,2,3,5
	체육선생님	2.95±0.40		
	기타	2.65±0.41		
적합한 성폭력교육 매체	비디오	2.69±0.46		
	CD-ROM	2.92±0.57		
	인터넷	2.69±0.50		
	잡지	2.51±0.61	2.14*	2,7〉5,1,
	강의	2.72±0.41		3,4,6
	만화	2.57±0.45		
	기타	2.85±0.28		

* P〈.05 ** P〈.01 **** P〈.0001

나타났다(F=2.21, P〈.05). 또한 교육 매체와 관련해서 볼 때 CD-ROM이 다른 매체보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14, P〈.05). 그러나 성폭력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6.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희롱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성희롱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보다 성폭력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t=-2.63, P〈.01). 또한 강제키스나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

〈표 6〉 성폭력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차이 검증

경험 여부	구분	Mean ± SD	t 값
성희롱	유	2.64±0.47	-2.63**
	무	2.74±0.44	
성추행	유	2.62±0.48	-2.78**
	무	2.73±0.43	
강간	유	2.78±0.81	
	무	2.71±0.45	0.18

** P〈.01

은 대상자들보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8, P<.01). 그러나 강간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F=5.37, P<.01)가 있었으며 Duncan 검정 결과 1학년, 3학년, 2학년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t=6.69, P<.0001) 남학생이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F=2.56, P<.05)를 나타냈는데 천주교를 가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차이 검증

특성	구분	Mean ± SD	F or t값	Duncan test
학년	1학년	2.77±0.45		
	2학년	2.65±0.46	5.37**	1>3,2
	3학년	2.67±0.41		
성별	남	2.88±0.39	6.69****	
	여	2.63±0.45		
종교	기독교	2.73±0.47		
	천주교	2.59±0.49	2.56*	3,1>4,2
	불교	2.77±0.43		
	없음	2.68±0.41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2.77±0.47		
	건강하다	2.70±0.44	1.07	
	보통이다	2.69±0.44		
	건강하지 못하다	2.66±0.44		
집안분위기	보수적이다	2.67±0.47	0.59	
	보통이다	2.71±0.46		
	개방적이다	2.74±0.40		
부모생존여부	양친생존	2.71±0.45		
	기타	2.77±0.51	-0.61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2.71±0.45		
	이혼	2.76±0.31	-0.42	
아버지 최종학력	대학원졸	2.72±0.41		
	대졸	2.69±0.46		
	고졸	2.70±0.45		
	중졸	2.79±0.41	0.55	
	중졸미만	2.62±0.40		
	기타	2.71±0.71		
어머니 최종학력	대학원졸	2.76±0.49		
	대졸	2.77±0.41		
	고졸	2.69±0.44		
	중졸	2.73±0.48	0.76	
	중졸미만	2.61±0.41		
	기타	2.83±1.01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차이 검증(계속)

특성	구분	Mean ± SD	F or t값	Duncan test
생활수준	상	2.78±0.42		
	중	2.70±0.44	1.50	
	하	2.80±0.59		
학교성적	상	2.71±0.41		
	중	2.70±0.46	0.13	
	하	2.72±0.43		

* P<.05 ** P<.01 **** P<.0001

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 비해 잘못된 통념을 더 적게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라고 지각한 대상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개방적이다' 2.74±0.40점, '보통이다' 2.71±0.46점, '보수적이다' 2.67±0.47점으로 나타나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를 가진 대상자 집단이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를 가진 대상자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생존 여부와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친이 생존한 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적게 가지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집단이 결혼 상태에 있는 집단 보다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최종 학력과 대상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관한 정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활 수준과 학교 성적이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정도에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7〉.

V.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분석하였다.

과반수의 학생이 성폭력 교육의 적당한 시기는 초등학교 4-6학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를수록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개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논문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을 한 김정은(1999)의 연구에서 제시한 조기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서도록 해야 할 것과, 초등학교 이전에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연구(박성정, 1996)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어릴 때에 성 차별적인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중적 성 윤리의 잘못된 통념을 내면화하기 전에 올바른 성 관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적합한 성폭력 교육의 매체로는 강의와 비디오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약 반수의 대상자가 양호선생님을 가장 적합한 성폭력 교육담당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성교육을 주로 양호교사가 맡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체육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교육을 받았을 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았는데 이는 체육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양호선생님, 가정선생님에 비해 연구대상자 수가 적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이 성폭력 지식을 획득하는 출처로 들고 있는 것은 매스컴, 친구, 교사의 순 이었는데 반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가장 높은 출처는 잡지였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상은, 2000)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음란매체로는 비디오 59.9%, 컴퓨터 통신 24.6%, 성인잡지 8.6%를 들고 있고 성 충동을 느끼게 하는 대상물로는 비디오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박성정, 1996)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종류가 무엇이든 음란매체가 청소년의 성적 비행 및 일탈 행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음란매체의 접촉 및 이용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준호, 1994; 박천일, 1986; 안광식, 1986; 이현정,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연구를 보면 성 표현물을 많이 접할수록 매체의 행동을 관찰 학습하거나 매체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매개로 성 관련 비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안동현(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70~90%에서 음란

물을 접했을 정도로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에게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다고 했으며 음란물은 대개 중 1, 2학년에 처음 접하며 비디오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보고 난 후 51.3%의 청소년이 따라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꼈으며 실제로 약 20%의 청소년은 모방 행동을 하였다. 모방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자위행위였으나 사창가를 출입했거나 성 관계 혹은 강간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김준호와 김혜원, 1997). 음란물이 심리에 미치는 효과로는 성적행동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키는 충동적 자극을 주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표현에 대해 점차적으로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아 결국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성적 대리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성적 감정의 분출을 느끼며 성범죄와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김영혜, 이화자 및 정향미, 2000)을 들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34.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22.3%는 강제키스나 신체접촉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0.8% 학생은 강간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염영희 등(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중학생의 2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김재엽과 이근영, 1998)에서 56.8%가 초등학교 이후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45.7%는 언어적 성희롱, 30.3%는 성추행, 그리고 5.0%는 심한 성폭력은 경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므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본을 조사하여 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71±0.45점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부나 저항을 할 것이다',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등의 문항에서는 나머지 문항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염영희 등(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평균이 2.86 이었으며(예, 본 연구에서는 평균 2.71점) 또한 '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의 문항에서도 본 연구보다도 평균이 낮았다.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통념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을 측정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못된 지식이 더욱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중생들의 성 지식 점수가 남중생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오윤정, 김정남 및 하숙영 등(1998)의 연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정확한 성 지식을 가졌다고 보고한 차은석(1998)의 연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이규은과 윤양소(1998)의 연구에서 여대생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는 젊고 고학력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성폭력 인지도가 높고 연령이 높고 저학력인 남성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한 심영희(199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성폭력 교육을 받았던 대상자가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이는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 지식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김용자, 1994; 김진선, 1995; 박순선, 1993; 이귀현, 1986; 한유정, 1997)등과 일치하는 점을 보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는 성교육의 시급성은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이들의 강간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20~30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예를 들면, 1994년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세대 총학생회 조사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강간 이외의 여러 가지 성추행, 음담패설, 성희롱 등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였으며 대응방식에서도 '숨기겠다'는 27%인 데 반해 '복수한다'(72%), '여성단체에 고발한다'(24%)였다), 이외에도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조사해 봄으로서 차후에 개발하게 될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4주 동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5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 녀 고등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5문항, 성폭력 경험과 관련

된 3문항,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관한 8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처리 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내용, 성폭력의 경험을 실수와 백분율로,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 성폭력 교육 및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의 차이검증은 평균, 표준편차, ANOVA 및 Duncan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29.5%, 여학생 70.3% 였으며 1학년 43.9%, 2학년 35.2%, 3학년 20.9% 였다.
2. 성폭력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63.3% 였으며 주로 매스컴, 친구, 교사를 통하여 성폭력 지식을 얻고 있었다. 성폭력 교육의 적당한 시기로 43.5%의 대상자가 초등학교 4~6년을 들고 있으며, 44.1%의 대상자가 양호교사가 성폭력 교육 담당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 교육의 매체로는 강의와 비디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34.1%의 대상자가 성희롱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22.3%는 성추행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0.8%는 강간경험이 있었다.
4.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대한 정도는 2.71±0.45점으로 중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5. 성폭력 교육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폭력 교육의 시기가 늦을수록 ($F=8.90$, $P<.0001$), 잡지를 통해 성폭력 지식을 얻을수록($F=2.58$, $P<.01$), CD-ROM을 통해 성폭력 교육을 받았을 때($F=2.14$, $P<.05$)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6. 성폭력 경험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희롱 경험($t=-2.63$, $P<.01$)과 성추행경험($t=-2.78$, $P<.01$)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F=5.37$, $P<.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t=6.69$, $P<.0001$). 또한 종교가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F=2.56$, $P<.05$).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생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이미 심한 성폭력 경험을 한 학생을 위해 학교 내에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3.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지도를 위해 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곽영숙 (2000). 한국청소년의 성의식. 대한의사협회지, 43(2), 119-127.

교육부 (2000). 성교육세미나.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영 (1997). 충남지역의 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37-41. 충남성폭력 상담소.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2000). 남자중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실태와 접촉반응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7-22.

김용자 (1994).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 (1997).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엽, 이근영 (1998). 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98. 겨울호), 247-272.

김정은 (1999).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2), 232~249.

김준호 (1994).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 김혜원 (1997).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 서울: 한국성폭력 상담소.

김진선 (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태연 (1990). 사회적 성과 강간. 정신건강연구. 9. 1-13.

대한간호협회 (2000). 성교육전문가과정.

문화관광부 (1999). 청소년백서.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선 (1993).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 전, 후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천일 (1986). 청소년일탈행위에 미치는 대중매체 효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법무연수원 (1998). 범죄백서.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심영희 외(1990). "성적 피해방지를 위한 성교육"학생들의 성문제 성교육 어디까지 왔나? 인간발달 교수연구회.
안광식 (1986). 대중매체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동현 (1997). 음란물과 청소년의 성.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74-1281.
오윤정, 김정남, 하숙영(1998).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467-501.
양순옥, 정금희, 최은진, 최영애(1999). 교육부 여성교육 정책연구과제 : "성교육 우수자료 추천제 개발방안" 보고서.
오윤정, 김정남, 하숙영 (1998).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467-481.
윤가현 (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이귀현 (1986).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은, 윤양소 (1998). 1개 지방도시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및 태도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425-440.
이미경 (1998). 성문화와 페미니즘. 서울 : 한국여성연구소.
이상은 (2000). 고등학생들의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및 음란매체 경험조사. 학교보건원연보.
이진경, 김은주, 염영희 (2001). 고등학생의 성교육 요구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71-80.
이현정 (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은석 (1998).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애 (1997). 친족성폭력의 실태. 정신건강연구, 13, 1-20.
한국 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2000 겨울방학 성교육 교사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유정 (1997).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강의 (1996). 청소년기의 성문제. 대한의사협회지, 39(12), 1514-1518.
Box, S. (1983). Rape and Sexual Assaults on Females,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Burgess, A. W., (1985). Rape and Sexual Assault : A Research Handbook. N.Y. : Garland Publishing.
Esrtrich, S. (1987). Real rape. Harvard University Press.
Fisher, W. A., (1994). Pornography, Effec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IN :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3, Ed. by Ramanchandran VS, Academic Press, Inc., San Diego.

- Abstract -

Key concept : Sexual Violence, High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s' Misconceptions of Sexual Violence

Yom, Young Hee · Lee, Kyu Eun***
*Yoon, Yang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igh school students' misconceptions and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9 to July 14, 2000 using the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660 high school students in six provinces(Seoul, Incheon, Daegu, Kyunggi, Kangwon, Kyungbuk).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Duncan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bout sixty-three percent of the subjects was educated for sexual violence.
2. About thirty-four percent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22.3%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rious sexual contact. and 0.8% of the subjects was raped.
3. The mean score of misconception related sexual violence was 2.71±0.45.
4. The mean score of misconception related sexual viol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layed time of education($F=8.90$, $P<.0001$), in reading of pornomagazine ($F=2.58$, $P<.01$) and in taken lecture from physical education teacher.
5. The mean score of misconception related sexual viol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t=-2.63$, $P<.01$) and in experience of serious sexual contact($t=-2.78$, $P<.01$).
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sconception related sexual violence between boy and girl($t=6.69$, $P<.0001$).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realistic and future-directed sexual violence education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information will provide useful data to promote a more systemic and desirable sexual violence education.

* Hallym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Young-Hee Yom
** Kwandong University
*** Youngdong Junior College